2019.07.05
NO.9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가메라와 고질라 지구를 정복하라!

Interview

<더 룸> 크리스티앙 볼크만 감독

<아빠?> 루디 리베론 산체스 감독

People

<남산 시인 살인사건> 고명성 감독

<사르가소해의 기적> 실라스 추메르카스 감독

씨네21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산다

푸슉
치익
뽀보록
캬

World Top3
Cho Jung
ORIGIN OF SPARKLING WATER
초정탄산수
500 mL(0 kcal)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 세계 3대 광천수 초정리 광천수 • 대한민국 최초 탄산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재 • 세종대왕이 사랑한 물

Fitton
GARMENT

강남본사 02.544.2548 | 부천본점 032.327.2548
광명점 대구점 대전점 부산범일점 부산센텀점 서산점 수원점 순천점 울산점 원주점 일산점 인천구월점
인천송도점 전주점 종로점 진주점 제주점 창원점 청주점 텍시도점 판교점 포항점 합정점
중국상해점(오픈예정) 몽골울란바토르점(오픈예정)

event

10:00~20:00
스탬프 이벤트
BIFAN 굿즈샵, 안내데스크

10:00~18:00
로봇 이벤트 존
부천시청 잔디광장 내
컨테이너부스

11:00~18:00
판타지아 이벤트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11:00~18:00
너의 목소리가 들려[소리함]
부천시청 잔디광장

12:15~21:00
판타스틱 뮤직페스티벌
부천아트벙커B39

19:00
폐막식 및 폐막작
〈남산 시인 살인사건〉
부천시청 어울마당

_
표지사진 오계옥

staff

발행인	배경록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김성훈 송경원 임수연
객원기자	이나경 김용진
사진	오계옥
사진객원	박종덕
디자인	김차인애 모보형
제작총괄	이지영
제작	이준용
인쇄	(주)에스제이씨성전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자원활동가들.

300명의 친구, 300가지의 짜릿함!

부천 일대를 누비며 영화제를 찾은 관객과 게스트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한 10개 팀, 30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 덕분에 영화제가 한층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진정한 주인공, 자원활동가들이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다.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5일(금) 열릴 폐막식을 앞두고 있다.

글 이나경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2019 환상영화학교 수료식 현장.

2019 환상영화학교를 마무리하며

7월4일 오전 10시 부천아트벙커B39 MMH 홀에서 환상영화학교 참가자들의 오픈 피칭 및 수료식이 진행됐다. 올해 환상영화학교는 14개국 25명의 신진 영화인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팀별 워크숍과 영화 제작 전반에 걸친 강의, 마스터클래스 등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영화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2019 환상영화학교 학장인 크리스 리 프로듀서의 진행으로 5개 팀이 15분씩 오픈 피칭의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에 임했다. "베트남에서는 오래된 나무와 사찰이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속설에서 베트남 로케이션을 결정했다는 호러영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잦은 한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며 시작하는 스릴러 드라마" 등으로 팀별 작품을 소개했다. 이어 수료 증서를 수여하며 본 시간을 마무리했다.

글 이나경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한가람
크라잉넛

BIFAN과 함께 춤을!

한여름의 열기를 날려버릴 음악 공연 '2019 판타스틱뮤직페스티벌'이 7월5일에서 6일까지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열린다. 오후 12시 15분부터 저녁 9시까지 이어질 이번 공연에는 크라잉넛, 하림과 블루카멜, 컨트리공방, 디어모션 등의 뮤지션이 참여한다. 양일의 라인업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영화제 홈페이지(www.bifan.kr) 내 이벤트 탭에서 미리 확인하길 권장한다. 공연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푸드트럭도 마련될 예정이다.

〈나이트메어 시네마〉

축제가 끝나도 영화는 계속된다

제23회 BIFAN에서 상영된 영화들 중 국내 개봉이 확정된 작품들이 있다. 올해 BIFAN 화제작 중 한 편인 〈나이트메어 시네마〉는 영화사 빅에서 수입, 배급을 맡아 7월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짐 자무쉬의 〈데드 돈 다이〉(유니버설 픽처스 수입배급) 역시 7월31일에 개봉한다. 나카시마 테츠야의 〈온다〉는 미디어캐슬에서 수입해 올해 겨울 개봉 예정이다.

BIFAN, 23번째 축제의 막 내려

BIFAN
지난해 '부천 초이스: 장편' 부문 수상자들.

7월5일 저녁 7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폐막식이 열린다. 신지예 아나운서, 배우 김다현의 사회로 진행되는 폐막식에는 부천 초이스, 코리안 판타스틱 등장, 단편 부문의 시상식이 함께 이루어진다. 올해 폐막작은 다방에서 살인사건에 휘말린 10여명의 용의자와 수사관의 심리 대결을 다룬 추리극 〈남산 시인 살인사건〉(감독 고명성)이다. 폐막 이후에도 7월7일까지 수상작과 깜짝상영작을 포함한 상영이 이어지니 자세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www.bifan.kr)를 참고하자.

BIFAN 人

"게스트와 관객 간의 케미스트리를 만든다"

전하은 프로그램팀 행사 담당

맡은 업무에 관해 소개해 달라. GV, 마스터클래스, 강연, 메가토크 등의 프로그램 이벤트를 맡고 있다. 모더레이터, 통역가 등을 섭외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반을 준비한다.

올해 행사 중 가장 자신 있게 내놨던 것이 있다면. 올해 메가토크의 중심은 여성이었다. 여성과 장르의 결합. 현장에서도, 온라인상에서도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 같다.

GV가 영화제 기간 중 계속 늘어나더라. 대부분 감독이 요청한다. 외국 감독들이 GV 한 번으론 만족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관객들과의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내 할 일은 늘어나지만, 뿌듯한 일이다. 관객과 감독 모두 즐겼다는 증거지 않나.

글 김용진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BIFAN 리멤버

배우 섭외는 힘들어

윤제균 · 감독

"2010, 11년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 영화제마다 배우 초청이 중요한 문제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찾을까 고민하다가 '올해의 배우상'을 포함해 상을 많이 만들었다. (웃음) 덕분에 그 다음해부터 배우들이 부천을 많이 찾아왔다. 그때 정말 열심히 집행위원 일을 열심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올해 영화제도 고생 많으셨다."

"경계 없는 욕구가 우리를 파괴한다"

〈더 룸〉 크리스티앙 볼크만 감독

〈더 룸〉은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다주는 마법의 방이 견인한 파국을 다룬 미스터리물이다. 매트와 케이트 부부는 수십 년 전 이 집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 들은 후에도 물욕을 제어하지 못한다. 아기를 갖지 못해 힘들어하던 부부가 급기야 방에서 자식을 얻은 후 치닫는 파격적인 스토리는 〈더 룸〉이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하는 장르영화가 아님을, 훨씬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인가.

프랑스에는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판타지가 있다. 실제로 낙향을 결심한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더니, 사람이 살짝 미쳐 있더라. (웃음) 소비 지향적인 도시인이 조용한 변두리 삶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본래의 자기 모습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작품을 떠올리게 됐다.

초중반 부부가 갖고 있던 판타지를 비주얼한 시퀀스가 인상적이었다.

돈과 명예, 섹스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단순한 욕망을 보여준 것이다. 〈더 룸〉은 옷장 속의 몬스터나 외부의 공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다. 지금 사람들의 욕망은 무한에 가깝다. 경계 없는 욕구가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수영장이나 돌고래도 등장했는데, 그것을 모두 구현할 만큼의 제작비는 없어서 "어린아이라면 용도 만들겠다"는 대사로 대신한 신도 있다. 제작비가 더 있었다면 보다 다양한 그림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주인공이 가진 판타지를 너무 많이 제시하면 영화가 지루해질 수 있다.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방은 미스터리하게 뒤엉킨 전기 배선과 연결돼 있다. 이 기괴한 비주얼에 영감을 준 것이 있나.

니콜라 테슬라의 머릿속이 어떨까 상상했다. 어떤 이는 그가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단한 천재 아닌가. 복잡하게 엉킨 전깃줄이 사람의 뇌 신경처럼 보이는 것을 의도해 디자인했다. 기본적으로 이 방은 무엇이든 검색하면 금방 보여주는 인터넷 같은 공간이다. 도메인 자체를 사물화하는 태세를 상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인간의 삶이나 사랑은 오브제가 아니고, 실제 인생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뭐든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방이 가져다준 아이 셰인은 점점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엄마인 케이트와 아들인 셰인의 관계 묘사도 흥미로웠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들은 유독 아들을 신처럼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투영하려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의 어느 뇌과학자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좀 더 상대를 위한 일을 하려 하고 남성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양육 방식과 연관이 있다더라. 어쨌든 엄마든 아빠든 부모의 욕심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정신적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 아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를 부정하고 떠나려고 한다. "신을 죽이면 인간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을 인용한 영화 속 설정은 자식의 독립을 상징적인 살인으로 은유한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글 임수연 · 사진 오계옥

심리 스릴러로 풀어낸 진짜 쿠바 이야기

〈아빠?〉 루디 리베론 산체스 감독

〈아빠?〉는 중남미 쿠바에서 날아온 심리 스릴러 영화다. 쿠바 아바나 근처의 농가, 사춘기 소녀 릴리는 권위적인 아버지, 그에게 속박된 엄마와 함께 살아간다. 두 발을 줄에 묶인 채로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엄마가 탈출하고, 아버지는 그녀를 쫓다가 이웃집 남자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릴리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혼란감을 느끼다가 영매를 통해 귀신을 불러낸다. 쿠바에서 태어나 현재는 영국에서 19년 동안 살고 있는 루비 리베론 산체스 감독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만든 진짜 쿠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하게 됐나.

쿠바에서 태어났지만 쿠바를 떠나 오랫동안 영국에서 살아왔다. 과거 소련 연방에 속한 국가로서 당연하고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문화들을 외부에서 바라보니 다르게 느껴졌다. 쿠바 안에서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보통 쿠바영화는 혁명을 옹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심리 변화를 묘사하는데 중점을 둔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었다. 무엇보다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이 영화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 혁명을 일으키는 이야기로 보이던데.

아버지는 가족을 많이 사랑하지만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은 남자다. 가족을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믿는다. 분명한 건 그는 영영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나. 그의 딸 또한 아버지에 대해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한다. 보고 배운 걸 그대로 따르고, 문제를 해결할만한 방법을 따로 내놓지 못한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영매를 통해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는 익숙한 반면, 쿠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영화에서 영매가 등장하는 게 신선하다. (웃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만 타이페이에 갔을 때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이곳이 쿠바보다 더 집처럼 느껴지고 무언가가 나를 편하게 했다. 그때 이후로 아시아에 올 수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한다. (웃음) 실제로 쿠바에서 조사를 해보니 영매 같은 존재가 많고, 그들은 희망을 가지면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준다고 한다. 이 조사 내용을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주인공 딸을 포함해 아빠, 엄마, 영매 등 출연배우들의 연기가 사실적이고 자연스럽던데.

영매 역할을 맡은 배우는 196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 대배우다. 3세대가 등장하는 이야기라 그를 영매 역할로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시나리오를 드리니 정말로 출연하시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다.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는 배우이자 인기 코미디언이다. 코미디 연기만 해온 까닭에 어두운 역할을 되게 하고 싶어하셨다. 쿠바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 이 분과 식당을 가면 밥이 공짜였다. (웃음) 주인공 딸은 실제로 16살이지만 동안이라 13살 소녀 역할로 캐스팅하게 적합했다. 배우 대부분 쿠바에서 과장된 연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낯선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촬영 초반에는 과잉 연기를 누르는데 신경 썼다.

차기작은 뭔가.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4편의 이야기를 경계 없이 진행하고 있다. 〈샤이닝〉 〈13일의 금요일〉 같은 호러 뿐만 아니라 장르영화라면 편견 없이 좋아한다.

글 김성훈 · 사진 오계옥

골짜기에서 강물로 이어지는 이야기

〈남산 시인 살인사건〉 고명성 감독

"골짜기로 가다가 강물로 이어지는 이야기다." 〈남산 시인 살인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서울 명동의 한 다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전후의 다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10명의 용의자와 수사관 사이 벌이는 추리극의 형식을 띄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시대와 역사의 이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구조다.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모르는 역사, 그 기원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클래식한 정서가 물씬 풍기는 이 영화는 고전에 대한 존경과 헌사 위에 서 있다.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의 〈오리엔트 특급살인〉을 비롯, 시드니 루멧의 〈12명의 성난 사람들〉(1957),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1950) 등 숱한 명작으로부터 받은 영감이 고명성 감독만의 색깔로 새롭게 채워졌다. "장르영화로서의 재미를 만끽하시다보면 그 속에 쌓인 다른 테마도 발견할 수 있으실 거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글 송경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장어와 여성의 삶은 닮았다

〈사르가소해의 기적〉 실라스 추메르카스 감독

〈사르가소해의 기적〉은 가부장적 폭력의 피해자였던 두 여성이 절망과 싸우는 이야기다. 남성 상급자들에 의해 그리스 서부의 메솔롱기 지역으로 좌천된 엘리자베스는 술과 마약을 좋아하며 종종 유부남과 섹스도 한다. "엘리자베스처럼 무결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 조직이나 지역사회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통쾌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감독의 설명이다. 남동생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리타가 장어 공장에서 일한다는 설정은 "두 여성의 삶과, 부화장에서 지중해, 대서양까지 와서 산란한 후 죽는 장어의 생애를 병치하는" 미학적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한편, 최근의 그리스는 독창적인 영화 언어를 구사하는 감독들을 배출하고 있다. 실라스 추메르카스 감독은 요르고스 란티모스나 아디너 레이첼 창가리 같은 자국의 감독에게 받은 영감보다는, 〈박하사탕〉(1999) 〈사마리아〉(2004) 같은 한국영화에게 받은 영향이 크다고 고백했다. "폭력적이지만 웃기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한국영화가 좋다. 쉽게 좋아하기 어려운 캐릭터가 나온다는 점도 내 영화가 비슷할 수 있다. (웃음)" 글 임수연 · 사진 오계옥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⑫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⑮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⑱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BG 부천체육관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A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3 CGV부천 3관 BU4 CGV부천 4관 BU5 CGV부천 5관 BU6 CGV부천 6관
BU7 CGV부천 7관 BU8 CGV부천 8관 SO2 CGV소풍 2관 SO3 CGV소풍 3관 SO4 CGV소풍 4관 SO5 CGV소풍 5관 SO6 CGV소풍 6관 MM 한국만화박물관

남산 시인 살인사건
The 12th Suspect

고명성 | 한국 | 2019년 | 102분 | 폐막작
7.5 CH 19:00 7.6 CH 15:30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가을 명동. 문인이나 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오리엔탈 다방에서 시인 10명이 간밤에 백두환 시인이 남산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소곤소곤 주고 받는다. 무리 속에서 그 얘기를 엿듣던 김기채(김상경) 육군 특무부대 소속 수사관은 자신이 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뒤, 시인 10명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한다. 백두환 시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이들의 증언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시대와 역사의 이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다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인 10명에 대한 탐문은 추리극 형식을 띤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백두환 시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동료 시인 10명의 증언들과 함께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역사를 주목하는 게 영화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 청산, 레드 컴플렉스, 간첩 조작 등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작동하는 이유이다. 김상경을 포함해 허성태, 박선영, 남성진, 남연우 등 배우들이 쉴 새 없이 주고 받는 대사와 호흡은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시킨다. 이 영화는 재일조선인북송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사요나라 안녕 짜이쩬〉(2009), 독거노인을 소재로 한 단편 〈무말랭이〉(2014)를 연출한 고명성 감독의 첫 장편 극영화 연출작이다. 김성훈

30년만의 재회
Come to Daddy

앤트 팀슨 |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미국 | 2019년 | 93분 | 부천 초이스: 장편
7.7 SO5 10:30

노벌(일라이저 우드)은 5살 이후 본 적 없는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고, 그를 만나기 위해 외딴 해안가 절벽의 오두막에 도착한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는 기존의 틀과 익숙한 관습을 깨부수며, 기이한 방향으로 선회한다. 낯선 인물들의 등장과 계속되는 아이러니로 관객이 혼란스러워질 때쯤, 블랙코미디 요소가 덧대어지며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쇼킹 오브 데스〉 시리즈, 〈터보키즈〉(2015), 〈데스가즘〉(2015) 등을 제작한 팀슨필름의 대표 앤트 팀슨의 장편 데뷔작으로, 그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아이디를 얻고 착안한 프로젝트다. 인물의 불안정한 심리를 바탕으로 스릴러 정서를 구축하며,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공포감을 조성해나가는 연출력이 돋보인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호빗 역할로 익숙한 배우 일라이저 우드의 출연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이나경 객원기자

돌연변이 대격돌
Mutant Blast

페르난도 알리 | 미국, 포르투갈 | 2018년 | 83분 | 금지구역
7.6 SO6 21:00

마리아는 실험을 통해 탄생한 초인 병사 TS-347을 가로채 연구소를 탈출한다. 28시간 후, 숙취에서 깨어난 페드로는 지난밤 좀비의 습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파티 현장을 기억해낸다. 집 안에 남아있는 좀비를 피해 밖으로 나오지만, 바깥의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페드로. 정부는 좀비구역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목에 세 번째 귀가 생긴 마리아와 한 손이 쥐로 변한 페드로를 포함하여 살아남은 이들은 신체에는 변이가 일어난다. B급 코미디 정서가 바탕이 된 SF좀비영화로 기존의 장르적 문법을 비틀며 본인만의 개성과 재미를 찾는 페르난도 알리의 장편 데뷔작이다. 눈과 팔이 3개가 된 사람들, 몇 배로 커져 인간처럼 행동하는 랍스터 등의 비주얼에도 주목할 만하다. 엽기, 고어, 호러 영화 제작의 대명사인 트로마 프로덕션의 신작. 이나경 객원기자

더티 갓
Dirty God

사샤 폴락 |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 2019년 | 104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7.5 SO2 20:00

제이드는 남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당하고 얼굴과 몸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는다. 병원에서 퇴원해 오랜만에 만난 딸은 그를 보자마자 괴물이라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럼에도 제이드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분투한다. 다만 그가 생각하는 삶의 회복은 사회가 만든 '아름다움'의 척도와 무관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성형수술 정보를 검색하고, 클럽에 가서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몸캠' 사이트에서 음란 채팅을 하는 제이드의 모습이 꽤 리얼하면서 불편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주인공의 바람이 연이어 좌절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진짜 욕망과 삶을 이어가는 조건을 깨우치는 과정이 감동적이다. 복잡다단한 제이드의 내면을 집중력 있게 연기한 비키 나이트는 〈더티 갓〉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단단한 중추다. 임수연

지나간 시간을 복기하기

영화 〈첫사랑〉 GV 지상 중계

이명세 감독의 〈첫사랑〉(1993)은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오리지널 네거티브는 소실됐고,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DVD도 없다. 〈첫사랑〉의 디지털 복원판이 BIFAN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이 많은 관객들을 흥분시킨 이유다. 지난 7월 3일 저녁 8시 CGV소풍에서 열린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는 만원이었다. 이명세 감독과 깜짝 등장한 배우 김혜수가 참석했는데 두 사람이 만난 건 26년 만이다. 최선을 다해 지난 시간을 복기해 꺼내놓은, 영화만큼이나 서정적이었던 그 순간들을 지면에 옮겼다.

이명세 당시 제작사가 〈첫사랑〉 전에 제작한 영화가 흥행이 안 됐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첫사랑〉 제작도 계속 지연됐다. 1년 가까이 찍었던 것 같다. 김혜수, 송영창 등 배우들이 기다려준 게 정말 고마웠다.

김혜수 짬만 나면 몰래 숨어서 잤던 게 기억난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다작을 해야 했었다. 주말극, 미니시리즈, 학교에선 단편영화, 쇼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진행까지 했다. 항상 지치고 잠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명세 감독님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기를 시켜서 힘들었다. 답답하면 직접 연기를 하시기도 했다. (웃음) 그런데 보통의 감독과 배우 관계와는 조금 달랐다. 마치 연극반 선생님과 학생처럼 가까웠다. 주전자 막걸리를 함께 먹었던 게 기억이 난다. 영화와는 별개로, 정말 낭만적이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명세 김혜수씨와 처음 만난 것이 누군가의 결혼식장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보는 순간 저 얼굴이 주인공 영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김혜수의 눈, 눈만 보이더라. "난 너의 눈만 기억하고 찍겠다"고 했다. 그 눈은 첫사랑에 대한 모든 함의를 응축하고 있었다.

김혜수 그때 감독님이 "혜수, 네 눈은 네 나이를 찾아야 해"라고 했다. 나는 당시 노숙한 이미지가 있었다. 항상 실제 나이에 비해 어른의 배역을 맡았다. 그러니 〈첫사랑〉 통해서 최초로 내 나이를 찾은 거다. 당시 나는 아직 사랑을 몰랐다. 연기는 22살에 했고, 내 실제 첫사랑은 23살 때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나온 연기들이 있는 것 같다. 때 묻지 않은 도화지 같은 투명함, 그것을 지금 할 순 없다. 지금 같은 연기를 하라면 당시의 김혜수보다 나을 자신이 없다.

이명세 예나 지금이나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 〈첫사랑〉 작업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다. 시간이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첫사랑은 언제나 과거다. 첫사랑이 미래일 순 없다. 나는 '첫사랑'이야말로 시간의 비밀을 여는 키라고 생각했다.

김혜수 촬영 전에 내가 감독님한테 영화의 주제가 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같은 말씀을 하셨다. "첫사랑은 시간의 비밀을 여는 키." 촬영 중에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첫 시사 날에서야 그 의미를 알았다. 영신의 사랑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변해버렸다. 영신의 얼굴, 영신이 걷던 그 골목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에필로그에서는 영신은 아예 사라진다. 과거 속으로 모든 것이 용해된다. 지금 보니 그 시간의 덧없음이 더 와 닿는다.

글 김용진 객원기자 · 사진 오계옥

괴수 엔터테인먼트

'지구정복 괴수전' 상영작

김봉석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

지난 5월29일 개봉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는 6월10일까지 관객수 40여만명을 기록하며 〈기생충〉에 처참하게 패했다. 그러나 북미에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는 첫 주말 4770만달러의 수익으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6월3일까지 전세계에서 거의 2억달러를 벌어들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에서 시작돼 할리우드로 넘어가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는 고질라에서 시작된 일본의 괴수물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열리는 '지구정복 괴수전'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고질라에 비해 지명도에서 밀리는 가메라는 1965년 〈대괴수 가메라〉로 처음 등장했다. 거북이를 모델로, 불을 뿜으며 공중을 날아다니는 가메라는 시작부터 아이들의 친구였다. 구원자이며 파괴신인 고질라와는 차별점을 두었다. 1980년 8번째 작품 〈우주괴수 가메라〉로 중단됐던 〈가메라〉 시리즈는 1995년 가네코 슈스케의 〈가메라 – 대괴수 공중결전〉으로 부활한다. 〈가메라2 – 레기온 내습〉(1996), 〈가메라3 – 사신 이리스의 각성〉(1999)까지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으로 불린다.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은 일본 괴수물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1984년에 다시 시작한 〈고질라〉 시리즈는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로 방향을 잡았다. 고질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보는 괴수영화를 지향한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이것이야말로 진짜 괴수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기네마순보〉 베스트10에서 6위를 했던 〈가메라 – 대괴수 공중결전〉은 괴수들의 대결만이 아니라 '정말로 괴수가 현실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묘사하며 어른의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한다.

괴수 출현과 재해의 리얼리티라면 안노 히데아키가 만든 〈신 고질라〉를 떠올리면 된다. 괴수가 대체 어디서 왔고, 목적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연구한다. 괴수 출현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 언론이 분석하고, 정부와 의회는 연일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군대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무기로 대응할 것인가. 괴수들이 나타나면 인간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가메라〉 1편에서 시작되었다. 1편은 단지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시점에서 괴수를 보는 듯한 카메라워크와 정교한 미니어처를 통해 탁월한 실감을 안겨주었다. 특수효과감독을 맡은 히구치 신지의 역할도 중요했다. 일본 재난물의 대명사인 〈일본침몰〉과 〈신 고질라〉 〈진격의 거인〉 등의 감독인 히구치 신지는 괴수와 밀리터리의 스페셜리스트다. 히구치의 손을 거치면 비록 스토리는 난삽하더라도 최소한 장면의 리얼리티는 선명하게 구현된다. 도쿄에 나타난 갸오스가 도쿄 타워를 무너뜨리고, 석양을 배경으로 내려앉은 모습은 최고의 명장면이다.

〈가메라 – 대괴수 공중결전〉

2편은 외계 생물이 홋카이도에 떨어지고, 실리콘을 먹으며 전자파에 반응하는 괴수가 나타는 모습을 통해 외계 침공 SF로서도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었다. 그 점을 인정받아 영화로는 처음 일본SF대상을 받았다. 또한 방위청의 전면 협조를 받아 촬영한 괴수와 인간의 전투 장면도 발군이다. 3편에서는, 가메라가 도쿄에서 격전을 벌일 때 건물이 무너지며 죽은 부모의 복수를 원하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즉 피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괴수물이다. 전반부에서 불타는 갸오스가 시부야 한복판에 떨어지고, 건물이 파괴되는 장면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군중의 모습을 통해 괴수 출현을 재난의 시각으로 섬뜩하게 보여준다. 마지막 장면의 처연함까지 괴수영화의 상식을 수없이 파괴하여 당시 찬반양론이 치열했던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의 화려한 피날레.

그 밖에 인간이 버린 공해물질에서 탄생한 괴수와 기이한 전투를 벌이는 괴작 〈고질라 대 헤도라〉(1971)와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대괴수 갓파〉(1967)도 주목할 작품이다. 당시 미나마타병 등 환경오염으로 일본 사회에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발빠르게 괴수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켰다. 인간이 초래한 재난으로서의 괴수물을 그려낸 시도. 〈대괴수 갓파〉는 당시 괴수 붐을 타서 만든 닛카쓰의 유일한 괴수영화다. 전래 요괴 가라스텐구를 모티브로 한 괴수의 디자인과 움직임이 인상적이며, 판타지영화로서의 괴수물이기도 하다.

07.05.금(fri)

	1	2	3	4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801 19:00 폐막작 남산 사인 살인사건 Closing Ceremony + The 12th Suspect 15	
MM Korea Manhwa Museum		813 14:00 ~ 15:10 아름과 미미와 말하는 개 Jacob, Mimmi and the Talking Dogs 70min G	825 17:00 ~ 18:41 학교 생활 School-Live! 101min 12	837 20:00 ~ 21:40 코퍼맨 Copperman 100min 12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802 11:00 ~ 12:25 GV 괴시 A Mostrous Corpse 85min 12	814 14:00 ~ 15:40 마누라 죽이기 How to Top My Wife 100min 18	826 17:00 ~ 18:34 신비의 체험 Weird Science 94min 18	838 20:00 ~ 22:01 모던보이 Modern Boy 121min 12
SO2 CGV Sopoong 2	803 11:00 ~ 12:28 팡파레 Fanfare 88min 18	815 14:00 ~ 15:24 내겐 너무 어려운 연애 Bangla 84min 12	827 17:00 ~ 18:15 사회로부터 탈출해야 할 77가지 이유 7 Reasons to Run Away (From Society) 75min 12	839 20:00 ~ 21:44 더티 갓 Dirty God 104min 15
SO3 CGV Sopoong 3	804 11:00 ~ 12:36 단편 걸작선 7 Short Films 7 96min 15	816 14:00 ~ 15:25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85min 15	828 17:00 ~ 18:08 단편 걸작선 13 Short Films 13 68min 18	840 20:00 ~ 22:33 걸리 보이 Gully Boy 153min G
SO4 CGV Sopoong 4	805 11:00 ~ 12:19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79min G	817 14:00 ~ 15:37 단편 걸작선 4 Short Films 4 97min 15	829 17:00 ~ 18:26 콜 마이 네임 Call My Name 86min 18	841 20:00 ~ 21:22 살인마를 키우는 여자 The Woman Who Keeps a Murderer 82min 18
SO5 CGV Sopoong 5	806 11:00 ~ 12:56 백 투 더 아이폰 Linking Love 116min G	818 14:00 ~ 15:30 아수라 Achoura 90min 12	830 17:00 ~ 18:03 내 연적의 모든 것 All about My Rival in Love 63min 15	842 20:00 ~ 21:43 바람피기 좋은 날 A Day for an Affair 103min 18
SO6 CGV Sopoong 6	807 11:00 ~ 12:10 단편 걸작선 11 Short Films 11 70min 18	819 14:00 ~ 15:11 로봇 단편 콜렉션 Robot Short Film Collection 71min G	831 17:00 ~ 18:51 싸이코비치 Psychobitch 111min 15	843 20:00 ~ 21:28 소나타 The Sonata 88min 15
BU3 CGV Bucheon 3		820 14:00 ~ 15:36 단편 걸작선 2 Short Films 2 96min 15	832 17:00 ~ 18:32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Gentlemen Prefer Blondes 92min 15	844 20:00 ~ 21:39 야수 Feral 99min 12
BU4 CGV Bucheon 4	809 11:00 ~ 12:59 아이 캔 스피크 I Can Speak 119min 12	821 14:00 ~ 15:41 빅 브라더 Big Brother 101min G	833 17:00 ~ 18:31 더 풀 The Pool 91min 12	845 20:00~22:14 깔딱상영 1: 온다 134min 15
BU5 CGV Bucheon 5	810 11:00 ~ 12:38 나만 없어 고양이 Hello, My Cat 98min G	822 14:00 ~ 15:32 헬 홀 Hell Hole 92min 15	834 17:00 ~ 18:55 이층의 악당 Villain & Widow 115min 15	846 20:00 ~ 21:39 사다코 Sadako 99min 12
BU6 CGV Bucheon 6	811 11:00 ~ 13:26 에이 아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146min 12	823 14:00 ~ 15:59 나이트메어 시네마 Nightmare Cinema 119min 18	835 17:00 ~ 18:24 복수의 밤 Nemesis 84min 15	847 20:00 ~ 21:44 히비키 Hibiki 104min G
BU8 CGV Bucheon 8	812 11:00 ~ 12:25 단편 걸작선 12 Short Films 12 85min 15	824 14:00 ~ 15:08 단편 걸작선 16 Short Films 16 68min 15	836 17:00 ~ 18:26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86min 15	848 20:00 ~ 21:53 더 빌리지 Dachra 113min 15

07.06.토(sat)

	1	2	3	4	5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901 11:00 ~ 12:06 라라의 신비한 모험 Cattle Hill 66min G	909 13:00 ~ 14:39 백사전 White Snake 99min G	917 15:30 ~ 17:12 GV 남산 사인 살인사건 The 12th Suspect 102min 15	925 18:00~20:28 잔시의 여왕 Manikarnika: The Queen of Jhansi 148min G	
MM Korea Manhwa Museum	902 10:30 ~ 11:58 별의 무게 Stars by the Pound 88min G	910 13:00 ~ 14:40 해커 Hacker 100min G	918 15:30 ~ 17:21 아빠는 악역 레슬러 My Dad is a Heel Wrestler 111min G	926 18:00 ~ 19:50 오버로드 Overlord 110min 18	933 21:00 ~ 22:33 아웃 오브 튠 Out of Tune 93min 15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903 10:30 ~ 12:10 영심이 Young-Shim 100min G	911 13:00 ~ 14:36 가메라 - 대괴수 공중 격전 Gamera: The Guardian of the Universe 96min G	919 15:30 ~ 17:09 가메라 2 - 레기온 내습 Gamera 2: Assault of the Legion 99min G	927 18:00 ~ 19:48 가메라 3 - 사신 이리스의 각성 Gamera 3: Revenge of Iris 108min G	934 21:00 ~ 22:44 열한번째 엄마 My 11th Mother 104min 12
SO2 CGV Sopoong 2	904 10:30 ~ 12:27 21세기 소녀 21st Century Girl 117min 12	912 13:00~14:43 깔딱상영 4: 운전 강사의 특이한 비밀 + 우유 103min 15	920 15:30 ~ 16:56 악마의 바람소리 The Wind 86min 15	928 18:00 ~ 19:22 작살 Harpoon 82min 18	935 21:00 ~ 22:32 너희가 노미를 알아? You Don't Nomi 92min 18
SO3 CGV Sopoong 3	905 10:30 ~ 12:01 고스트 마스터 GHOSTMASTER 91min 15	913 13:00 수상작 상영 1 Awarded Title 1	921 15:30~17:03 GV 깔딱상영 2: 기름도둑 93min 15	929 18:00 ~ 19:36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We Have Always Lived in the Castle 96min 15	936 21:00 ~ 22:25 토막 살인범의 고백 A Young Man with High Potential 85min 18
SO4 CGV Sopoong 4	906 10:30 ~ 12:18 모뉴먼트 Monument 108min 15	914 13:00 ~ 14:31 영원한 족쇄 Chained for Life 91min 12	922 15:30 ~ 16:57 만리키 MANRIKI 87min 18	930 18:00 ~ 19:43 데드 돈 다이 The Dead Don't Die 103min 15	937 21:00 ~ 22:49 골든글러브 The Golden Glove 109min 18
SO5 CGV Sopoong 5	907 10:30 ~ 12:04 발렌타인 Valentine 94min 12	915 13:00 ~ 14:46 에어포칼립스 Airpocalypse 106min G	923 15:30 ~ 17:02 투 개의 영혼 Walk with Me 92min 12	931 18:00 ~ 19:43 매드 매드 매드 쇼 It's a Mad, Mad, Mad, Mad Show 103min G	938 21:00 수상작 상영 2 Awarded Title 2
SO6 CGV Sopoong 6	908 10:30 ~ 12:24 멜랑콜릭 Melancholic 114min 15	916 13:00 ~ 14:46 시티즌 루스 Citizen Ruth 106min 15	924 15:30 ~ 17:12 하늘의 모든 신들 All the Gods in the Sky 102min 18	932 18:00 ~ 19:46 아니아라 Aniara 106min 18	939 21:00 ~ 22:23 돌연변이 대격돌 Mutant Blast 83min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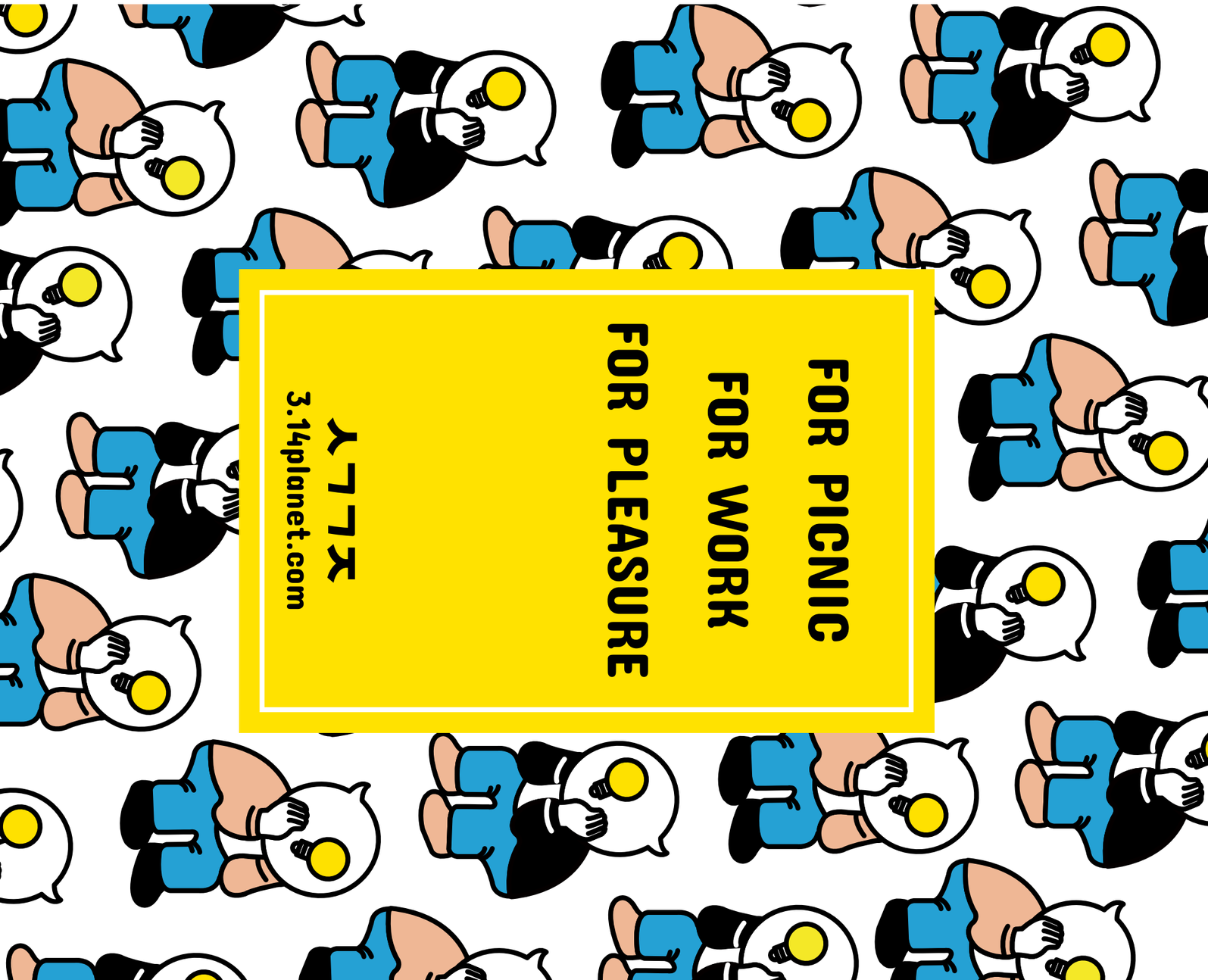
심야상영 Midnight Screening

24:00 18 비밀스런 호러의 밤 Silent Night Holy Night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940 초의태인간 Mimicry Freaks 83min	귀신 상담사 Eerie 100min	카르마 Karma 88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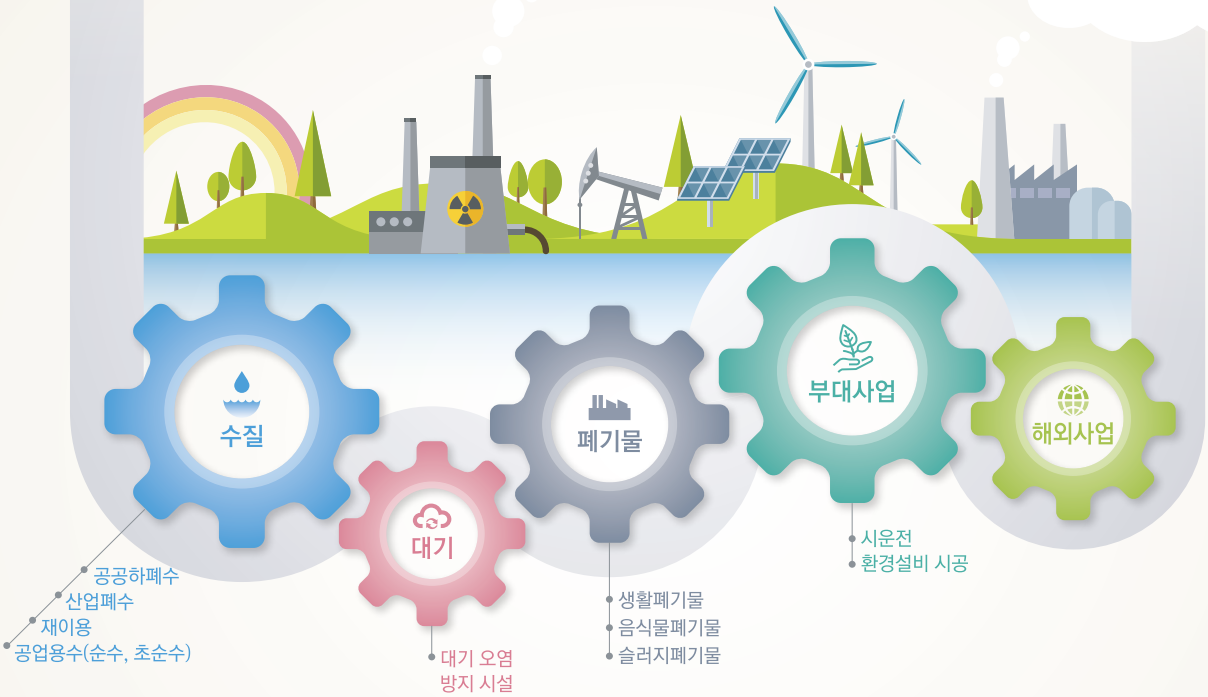
등급 Rate

G	전체 관람가	General
12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15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18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하이엔텍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후원합니다

환경선진강국!
하이엔텍이 함께합니다



하이엔텍은

공공 하·폐수처리, 산업폐수, 공업용수(순수, 초순수) 및 재이용 등의 수처리 사업과 대기오염방지, 폐자원 에너지화 등 환경시설 전문 O&M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경제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증대시켜
환경선진강국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istory

2017	5월	하수 인회수 기술 개발
2016	9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11월	베트남 진출
2015	1월	천진시발해경공그룹합작
	6월	ISO 14001 획득
2014	6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11월	OHSAS 18001 획득
2013	1월	중국 천진수처리 법인 성립
	3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공공하수도)등록
	6월	중국 환경보호시설 운영 면허증 획득
	7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거) 등록
2011	11월	㈜ LG전자 자회사 편입 주식회사하이엔텍 사명 변경
2010	4월	주식회사대우엔텍 사명 변경
2008	5월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시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6월	주식회사 금호환경기술 사명 변경
2003	6월	오수 처리시설관리업 면허등록
	12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2	2월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면허등록
2001	11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12월	철물공사업 면허등록
2000	3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6월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면허등록
1999	10월	주식회사맑은물지키미 법인 설립

HiEntech
LG affiliated company